

일본해에 관한 호칭 문제(러시아에서의 조사):개요

일본 외무성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러시아 국내 도서관, 고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17세기부터 19세기의 지도들이, 일본해 해역 명칭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일본해]라는 호칭이, 일본의 쇄국 정책 하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 초엽부터 서구에 정착되어 있었다]라는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러시아 국립 도서관,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모스크바), 러시아 국가 도서관(구 Sidlin 국립 도서관) 및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관소(상트페테르부르크)의 4곳에서 조사하였다.

한편, 한국 측은 예전부터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19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이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 러시아에서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다. 한국 측은 러시아 공립 도서관 및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된 지도 중에서 19점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관련된 명칭은 10점(Sea of Korea(7), East Sea(1), Eastern Ocean(1), Gulf of Korea(1))이었고, 일본과 관련된 명칭(Sea of Japan)은 3점에 불과했다고 한다¹.

1. 조사 목적

(1) 일본은 [일본해]라는 호칭이 해당 해역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일본해]라는 호칭이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 [일본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다) 지리적 명명법으로도 [일본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2) 상기 (나)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는 일본 국토 지리원 연구자 2명이 유럽에서 발행된 200점 이상의 고지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말엽까지는 이 해역에 대해 [중국해], [동양해], [조선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주 1). 또한, 외무성이 실시한 대영 도서관 및 케임브리지 대학 소장 고지도 조사,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에서도 이상의 사실이 확인되었다(주 2).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는 19세기 초엽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탐험가가 일본해 주변을 탐험하여, 일본해가 일본 열도에 의해서 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지리적 형상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견해는 많은 연구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일본측 주장의 정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지도 자료를

¹ 「East Sea in Old Western Maps with Emphasis on the 17~18th Centuries」The Society for East Sea, Th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출판(2004년)

소장하고 있는 미 의회 도서관에서 1300년부터 1900년까지 발행된 지도를 조사하여, 일본해의 호칭이 정착되어 있었는지를 알아 보았다. 해당 해역에 관해서 호칭을 기재한 지도는 1,435 점이었고, 그 중 77.4%에 해당하는 1,110 점의 지도가 [일본해]로 표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앞서 언급한 영국, 프랑스의 조사 결과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주 3).

주 1:일본 외무성 작성 일본해 팜플렛 참조

주 2: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페이지 “대영 도서관 및 케임브리지 대학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참조

주 3: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페이지 “미 의회 도서관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참조

- (3) 일본 외무성은 상기 주장의 정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조사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 세기에 발행된 지도에서 일본해에 관한 호칭이 정착되어 있었는지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 (4) 이번 조사 배경에는 한국 측의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19 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이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 러시아에서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다. 한국 측은 러시아 국립 도서관,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 및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관소에 소장된 18 세기에서 19 세기까지 제작된 고지도 19 점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2.6%에 해당되는 10 점이 [한국해] [동해] 등 , 한국과 관련된 명칭을 표기하고 있었고 [일본해]라고 표기한 고지도는 15.8%에 해당하는 3 점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 개요

- (1) 본건의 조사는 재러시아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실시했으며, 동 대사관은 러시아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하 4 곳의 러시아 국내 도서관 및 고문서 보관소에서 지도 연구를 실시하였다.
- 러시아 국립 도서관(모스크바)
 -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모스크바)
 - Sidlin 국립 도서관(상트페테르부르크)
 -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관소(상트페테르부르크)
- (2) 먼저, 러시아 국립 도서관에서, 일본해 해역에 관해 기재한 지도 300 점 중에서 19 세기 이전에 출판된 92 점의 지도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 (3) 상기 리스트를 근거로 하여, 조사 허가를 받은 이상 4 곳의 도서관 및 보관소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 대상은 보관되어 있는 지도 가운데에 촬영과 복사 허가 등을 받은 지도 중에서 무작위로 51 점을 선택하였다(이러한 방법을 취한 이유는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지도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3. 조사 결과

(1) 조사한 총 지도 수: 51 점

다른 도서관 또는 고문서와 중복된 지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2) 연대별(1630년부터 1899년까지)

(가) 16세기: 0 점

(나) 17세기: 2 점(3.92%)

(다) 18세기: 13 점(25.49%)

(라) 19세기: 36 점(70.59%)

(3) 호칭별

조사 지도의 호칭별 일람

해당 해역 명칭	1601~ 1700년	1701~ 1800년	1801~ 1867년	1868~ 1900년	지도 수	비율
일본해		2	15	12	29	72.5%
조선해		5	2	1	8	20.0%
조선 해협			1		1	2.5%
동해		1			1	2.5%
중국해		1			1	2.5%
(표기 없음)	2	4	5		11	
(합계)	2	13	23	13	51	

각 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중복된 지도는 제외하였다.

(4) 조사 기관별

조사 기관별 조사 지도 일람

No	기관명	일본해 해역이 들어간 지도 수	복사한 지도 수
1	러시아 국립 도서관 (모스크바)	42	37
2	국립 도서관 (상트페테르부르크)	41	11
3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관소 (상트페테르부르크)	45	1
4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 (모스크바)	14	2
5	러시아 제국 외교 고문서 보관소 (모스크바)	조사 허가 안됨	—
6	국립 지리학 협회 고문서 보관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사 허가 안됨	—

주: 4곳의 보관소에서, 일본해 해역이 표기된 17세기 - 19세기까지의 지도 142 점을 확인하였다. 그 중, 중복된 지도를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던 지도(무작위로 추출)는 전부 51 점이었다.

4. 분석

(1) 1630년부터 1899년까지 러시아에서 발행된 지도 중에서,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지도는 51 점이었다. 그 가운데 일본해 해역에 관한 호칭을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총 40 점이었다. 그 중에서 72.5%에 해당하는 29 점이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2) 또한, 40 점의 지도 중에서 일본해 해역을 [조선해]라고 기재한 지도는 8 점(20.0%)이었고, [중국해], [조선 해협], [동해]라고 기재한 지도는 각각 1 점(2.5%)에 불과하였다.

(3) 지도 발행 연대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18 세기까지 발행된 지도에서는 일본해 해역에 관해 호칭을 표기한 지도가 9 점이었다. 그 중 5 점에 [조선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 [일본해](2 점), [중국해](1 점), [동해](1 점)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 세기에 들어서면 양상을 달리한다. 일본해 해역에 관해 호칭을 표기한 지도는 31 점이었다. 그 가운데 27 점(87%)가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5. 결론

이번 조사에 의하여, [일본해]라는 명칭이 19 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른 명칭들을 압도하고 사용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지금까지 실시한 고지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쇄국 정책 하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 세기 초엽부터 [일본해]라는 표기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러시아에서의 고지도 조사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6. 한국 측 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2002 년 상기 도서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이하의 의문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다.

한국 측은, 일본이 실시한 조사 장소와 동일한 러시아 국립 도서관,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모스크바),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관소(상트페테르부르크) 3 곳에 보관되어 있는 18 세기에서 19 세기에 걸친 합계 19 점의 고지도를 조사하였으나, 이들 19 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각 도서관의 조사 허가 문제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일 간의 조사 결과가 큰 차이(특히 [일본해]라고 표기한 지도 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 측이 조사 선정 기준을 공표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 측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2) 한국 측은 20 세기 전반의 고지도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

한국 측은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인 20 세기 전반의 지도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

(3) 한국 측은 [동해]라는 명칭을 주장하면서도, 그 외 명칭들을 [동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한국 측은 [동해]라는 명칭을 주장하면서도, [조선해], [조선만] 등, 한국과 관련된 명칭을 [동해]로 간주하여 이 명칭들을 합계하고 있다. 또 그 수를 일본해 표기 지도 수와 비교하여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동해] 표기가 한국 측의 조사에서도 거의 고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셈이다.